

민 정 실	음 진 천
-------------	-------------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사경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서둘러 선을 행하고
 마음을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라.
 선을 행함에 게으름을 핀다면
 마음이 죄악에서 낙을 찾네.

Make haste and do what is good; keep your mind away from evil. If a man is slow in doing good, his mind finds pleasure in evil.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해외불교 기획 / 미국불교 新유행

美 종교계 ‘JuBu(유대인 불자)’ 증가

상 미국사회 新종교트렌드 ‘JuBu’가 뜬다,

유대교 신앙 지키며 불교수행 실천, 초심불자 30%...혼합종교주의 경향

미국 LA 타임즈와 ABC 방송은 지난 2 일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미국 내에서 유대인이면서 불교를 통해 정신수행을 하는 ‘주부(JuBu)’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미국 언론의 보도만으로 서구 사회 전반의 종교 흐름을 짚기는 힘들다. 그러나 불교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교임은 분명하다. 신(新)종교트렌드로 떠오른 ‘JuBu’를 중심으로 미국사회의 종교변화를 3 회에 걸쳐 소개한다.

“유대인인 베카 토폴(Becca Topol, 37)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 불상을 모셔놓고 집 정원에는 ‘평화(Peace)’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Shalom)’이라고 쓴 돌을 놓아두고 있다. 또 다른 유대인 데이비드 그로텔(David Grotell, 41)씨도 집안에 불교 명상처를 두고 수행을 한다. 그러나 그로텔씨는 유대교에서 금기시하는 우상숭배를 깨는 것을 걱정해 불상 모시기 만은 하지 않고 있다.” (LA 타임즈 5 월 2 일자)

토폴씨와 그로텔씨처럼 유대교도이면서 불교를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으려는 ‘주부(JuBu)’들이 서구사회의 새로운 종교 트렌드를 형성하며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유대교(Jewish)’를 믿는 불교신자(Buddhist)’라는 뜻의 ‘주부(JuBu)’라고 자칭하며 “불교수행이 더욱 믿음이 강한 유대교인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의 존재를 사이비 불자로 폄하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불자이고, 대다수를 형성하며 ‘미국불교’ ‘서구불교’라는 종교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부(JuBu)’란 부모로부터 유대교를 물려받아 공식적으로는 유대교도이지만 실제 종교 활동은 불교를 실천하는 혼합 종교인들을 일컫는 말. 사실 ‘주부(JuBu)’라는 단어는 최근 발생한 급조언어는 아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1994 년에 로저 카메네츠(Roger Kamenetz)라는 작가가 쓴 <연꽃속의 유대인(The Jew in The Lotus)> 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책 속에서 밝히는 ‘주부’의 종교형태가 대중의 눈을 사로 잡았고, 그것이 서구인들에게 어필되어 유행으로 이어졌다.

현재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주부’숫자를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외신들은 최근 새로운 불자로 등록하는 이들 가운데 최소한 30%가 유대교도라는 주장을 펼 만큼 ‘주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LA 타임즈가 밝힌 1970 년대 미국 내 불교인구가 3000 만 명인 것을 감안해, 이후 미국 내 유대인 약 6000 만 명중의 대다수가 ‘주부’로 전환을 한 것을 짐작할 때 현재의 미국 내 불교인구 분포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부’가 늘면서 상당수 유대 교회에서 불교에서 영향 받은 명상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곳이 늘고 있고, 불교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유대교도가 됐다. 또 유력한 불교 잡지인 ‘트라이씨클: 불교 리뷰’의 편집진 대다수가 독실한 유대교도들이고, 지난 40 여 년 이상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원(Zen Center, 禪院)의 불교 책임자 10 명중 절반이 유대교도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들 언론은 언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안과 의사로 근무한다는 마크 라이베르만(Marc Lieberman)씨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유대교와 불교의 건전한 모자이크 주의자”이고 “두 종교의 결합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도 대부분의 ‘주부’들은 “유대교는 상속받은 종교이지만 불교를 믿는 것은 삶의 교훈으로서 편안해지는 느낌이다” “패션유행처럼 그냥 요즘 꽤 훌륭하게 유행(feel-good trend)하는 경향이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물론 미국사회에 혼합종교형태로 ‘주부’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혼합종교형태인 기독교불자(Buddhist Christian), 천주교불자(Buddhist Catholic) 등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ABC 방송의 뉴스앵커 빌 레데커 씨는 지난 2 일 방송에서 ‘주부’를 “역설적 다양성(paradoxical diversity)” 으로 표현하며 “성모 마리아가 주부디즘(JuBuism)의 의미를 밝혀주길 바라지만 누구도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다”며 종교적 다양성에 열린 생각을 가질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불교인구 1 천 32 만...스님 4 만 1360 명

문화관광부 발간 '2005 문화정책백서' 집계

(전통)사찰을 비롯한 교회 성당 등 국내 종교의 교당(敎堂)이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9만 1833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회가 6만 785 개소로 가장 많고 사찰은 전통사찰을 포함 2만 2072 개소로 집계됐다.

그러나 종교인구는 199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할 때 불교인구가 1032 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23.2%로 불교 신도수는 다른 종교인구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님은 4만 1360 명으로 사찰별 평균 2명의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관광부는 지난 17일 발간한 <2005 문화정책백서>를 통해 밝혀졌다. 참여정부 출범 3년과 지난해 문화정책의 성과를 정리했다.

백서에는 종교현황을 비롯해 지난 1989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이후의 남북 종교교류 현황도 명시돼 있다. 현황에 따르면 1989~1997년 평균 1명 수준이던 남북 종교교류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3224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남북간 실질적인 종교교류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교류사업이 협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율적 종교교류협력 지원과 북한체제의 종교현실 인정, 종교계 대북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남북 종교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며 향후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참선, 차 그리고 음악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날 뿐: 연주가.악기 만나 소리나듯, 변화하는 현상 자체는 존재

불교는 일종의 두레밥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렸을 적 시골의 두레밥상에는 모두가 등글게 모여앉아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오더라도 중간에 수저만 들고 끼어들면 된다. 그래서 불교에 오면 예수님도 예수보살이 되고, 마호메트도 마호메트보살이 된다.

중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니 보살인 것이다.

사실 불교는 없는 곳이 없다. 차에도 불교가 있고, 음악에도 불교가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차와 선이 둘이 아니고, 음악과 선이 둘이 아니다. 참선과 차, 그리고 불교음악이 한 통속으로 꿰어져있는 것이다.

음악을 예로 들어보자. 대금연주자가 대금을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온다. 이를 듣던 어떤 사람이 황홀함을 느껴서, 그 소리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연주자와 대금을 가져왔다. 이를 본 그는 '아니, 연주자와 악기 말고, 아까 그 황홀했던 소리를 가져오란 말이야'라고 했다면, 무어라 해야 할까?

연주자와 악기를 떠나서 소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악기라는 인(因)과 연주자라는 연(緣)이 만나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날 뿐.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눈물짓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동요를 느끼기도 한다. 결국 소리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심금을 뒤흔드는 작용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를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 한다.

차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눈으로 빛깔을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입으로 맛을 음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차 맛이라는 것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향기로운 차를 마시고 그 맛을 못 잊어 그 맛을 가져오라 한다면, 무어라 해야 할까. 차의 맛은 내 혀라는 인(因)과 향기로운 차라는 연(緣)이 합쳐져 느껴지는 것이다. 예컨대 감기라도 걸려서 입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차라도 소용이 없다. 혹은 입맛은 정상이라 해도 차의 맛이 별로라면 향기와 맛을 음미할 수 없다.

하지만 차 맛은 분명히 있다. 깊숙한 맛이 있는가 하면 열은 맛이 있기도 하다. 차 맛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기도 하고, 덤덤해 하기도 한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진공묘유이다.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던 혜가스님은 달마대사에게 말한다. '제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이에 달마대사는 말한다. '그래, 그 마음을 내어 놓아라.' 이에 불안한 마음을 찾던 혜가는 말한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말한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이 편안해졌겠구나.'

불안한 마음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생겨났을 뿐! 마음이라는 인과 몸이라는 연이 만나 불안한 마음이 형성되었다. 몸과 마음을 떠나 불안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과 마음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함이 어떻게 실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산다.

행복과 불행을 체험하고, 평안과 불안을 감지한다.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안심을 느끼기도 하는 작용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는 선지식과 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진공묘유이다.

쌍계사 승가대학 강사

경전 공부보다 참선이 더 낫다던데요...

경전은 바른 길 안내하는 지도, 교리 이해와 수행 균형 잡아야

경전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해도 해도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님들께서는 경전 공부보다는 참선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고통의 세상인 사바세계를 건너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지혜를 일깨우며 무명(無明)과 번뇌의 문을 닫고 열반(涅槃)으로 향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의식에 온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열리고 슬기로워지며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이 정화되어 깨달음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전은 길을 찾는 지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면 쉽게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지도를 안 보고 가게 되면 제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고 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끔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은 경험이 있는, 경험이 많은 스승입니다.

그러나 가끔 지도도 아예 펴보지 않고, 또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묻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묻기만 하면 항상 똑같은 대답 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이 쌓이면 그만큼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공부는 중요합니다. 경전은 다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닫게 되면 부처님 덕이고, 그렇지 못하면 부처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거나 잘못 읽고, 또 제대로 읽었다고 해도 실제로 가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찌면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습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 필기시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도 봐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초보운전입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는데 실제의 운전연습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운전이 서툴러서 사고가 났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영영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운전을 잘 할 수 있지요. 어떤 것이 실패입니까? 그만두고 좌절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경전공부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란 업장(業障)에 가려져 있는 불성(佛性)을 일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업장의 두께만큼이나 끝없는 수행의 반복이 요구됩니다. 나의 자각(自覺)을 경전에서 일깨운다고 생각하면 번뇌와 업장이 두터울수록 노력은 계속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전을 공부하면서 불교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중생구제라는 불교 본래의 목적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칫 지식의 습득으로만 흐를 수 있는 불교 공부는 좋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참선과 경전 공부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선수행이 아주 좋은 수행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수행은 아닙니다. 다만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 하여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궁극적 의미를 통찰하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지요.

불교가 진리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리와 수행법이 보편타당하다는 점입니다. 수행방법은 ‘좋다’, ‘나쁘다’의 분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겠지요. 경전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닦아도 참선이고, 염불을 하면서 마음을 닦아도 참선입니다.

서울 정혜사 주지

불국사 초대 회자 홍법 문정모 회장님을 생각하며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

홍법 문정모 회장님과 불국사의 인연은 2002년 5월에 세인트루이스에 불국사에 창건된지 약 한 두달 후인 6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회장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조용히 사찰에 오셨다 법회가 끝나면 언제 가셨는지 조용히 가시곤 하셨다.

이 시기는 세인트루이스에 사찰 창건 동참 신도 한명없이 시작했던 불국사라 모든 것이 어려웠고 곤궁했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일요 정기 법회에 오시는 신도님들께 불교 기초교리도 강의 하면서 한분의 신도님들 이라도 불국사에 마음을 불이게 하고 싶었던 시절 이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신도님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찰 창건한지 약 4개월 후에는 일요정기 법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신도님들로부터 사찰에 전화 한통없는 침묵의 시간이 끝도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꼈다. 어쩌면 세인트루이스에 사찰을 창건하자 바로 사찰의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는 무언의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었던 한달 후에 홍법 문정모 회장님이 부인과 같이 사찰을 찾아 오셨다.

회장님은 법당에서 부처님께 참배후에 자리에 앉으셨지만 긴 침묵이 흐른후에 “스님! 용기를 가지십시오. 스님만 흔들리지 않으시면 사찰은 바로 설것입니다. 사찰은 스님 중심으로 신도들이 합심해서 사찰이 운영되어야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스님이 끌려 다니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법회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님! 법회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불국사를 지켜 주십시오.”

그때부터 숨막히도록 적막감이 도는 사찰에서 나는 수행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부처님과 신장님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매주 법회가 있는 일요일에는 행여나 오늘은 신도님들이 오실려나 기대 하면서 신도님들이 나오실 때 만큼 공양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지만 아무도 법회에 나오지 않아 혼자 일요 정기 법회를 마치고 혼자 공양을 하고 남은 밥과 반찬은 일주일간 먹는 시간이 또 2개월이 흘렀다.

부처님께서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신것인지 10월 말에 젊은 유학생 부부가 사찰을 찾아 준 것을 계기로 불국사에 다시 새로운 얼굴의 신도님들이 모이시기 시작하며 활기를 되찾았다. 그동안 뒤에서 항상 용기를 주셨던 홍법 문정모 회장님도 사찰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와 정진을 하셨다.

불국사가 창건된지 두해째가 되는 2003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많은 신도님들을 모신 가운데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행사를 가졌다. 창건된지 두번째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지만 세인트루이스의 불국사 창건은 2002년이 아니고 2003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2002년의 어려웠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때, 신도님들의 존경을 받았던 홍법 문정모 회장님은 불명도 받으시고 불국사 초대 회장으로 추대도 되었다. 어렵게 세인트루이스에 뿌리를 내렸던 가난한 사찰의 초대 회장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회장님은 신도님들의 믿음직한 아버지로 때로는 푸근한 할아버지로, 그리고 스님결에는 든든한 신도님으로 사찰의 기둥이 돼 주셨다. 2005년 사찰이 세인트루이스에 뿌리를 내린 즈음에 불국사는 가람을 짓기 위한 한 평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회장님은 병석에 눕게 되었고 회장님은 병석에 누우셔셔도 자신의 건강보다는 사찰의 중요한 불사를 앞두고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하셨다. 제 손을 잡으시고 “스님 불국사가 세인트루이스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통스러운 임종 직전까지도 기도와 정진으로 임하시며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화장을 하고 모든 장례의식을 불교식으로 모셔드렸다. 초대 홍법 문정모 회장님은 가셨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불국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평후인 홍법 문정모 회장님의 왕생 극락을 발원합니다.

법회소식 NEWS

-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국에서 현재 중앙승가 대학에 재학 중이신 지명스님과 지성 스님이 불국사를 방문하십니다. 신도님들은 두분 스님이 약 한달간 사찰에 머무시는 동안 미국을 많이 알고 배우고 가실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이 불국사 후원회 법회, 남평후인 홍범 문정모 회장님 49제 (7월 12일 한국 대구시 소재 대한 불교 조계종 삼보사에서 갖는다. 전화번호: 053-768-5220), 불국사 부지 마련을 위한 땅불사, 사찰 조감도, 영문 팜플렛 준비 등등의 일로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2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동안 불국사나 선각 스님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신도님들은 불국사에 거거하시는 지명 스님이나 지성 스님께 연락을 주시던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 기간중의 토요일 참선 법회나 일요일 정기 법회는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바쁜일이 있으시더라도 법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십시오.
- 불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부처님 제가가 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불명이 없으신 신도님들 중에서 불명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불명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불교 기초교리를 이수한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초대 회장직을 훌륭히 수행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님 같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할아버지와 같은 푸근함을 지니셨던 홍범 문정모 회장님께서 5월 25일 새벽 3시 30분에 운명 하셨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일리노이에 있는 Schildknecht Funeral Homes 장례식장에서 100여명이 넘는 조문객들과 같이 불국사 주지 연암 스님 선각 스님의 집전하에 회장님의 유언대로 “불교식”으로 장엄하고 경건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날 장례식장을 장엄한 꽃들은 불국사 신도회가 일심으로 동참해 주신 꽃들입니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의 초대 회장님의 왕생 극락을 빕니다.
- 그동안 사찰과 노인회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세트루이스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점심공양은 9월 둘째주 일요일인 9월 10일로 날짜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 5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10번 을미생 양순영, 215번 정미생 최성원, 216번 기유생 황경희, 217번 을해생 최수영, 218번 정축생 최수훈, 255번 을묘생 김효균, 263번 경오생 최준혁.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토로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5월 한 평 불사 동참자: 망부 남평후인 홍범 문정모 영가 (행효자 문병현 복위), 무량화 김봉순.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